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을 중점 평가한 결과, 정부가 수지차 보전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미흡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 예산은 결산에 비해 적게 책정되고 있어,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을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은 특정기업에 집중된 여신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개발, 사회·문화 등 주요 분야의 각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은 사업의 계획이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됨. 먼저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의 현안을 중점 평가하고, 이어 분야별로 사업·예산규모가 큰 기관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중점 평가

1.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편성
2. 공공기관 정부배당과 정부수입예산
3.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4. 공기업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실효성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분야별 평가

- 국토개발
- 사회·문화
- 농림·수산·식품
- 교통·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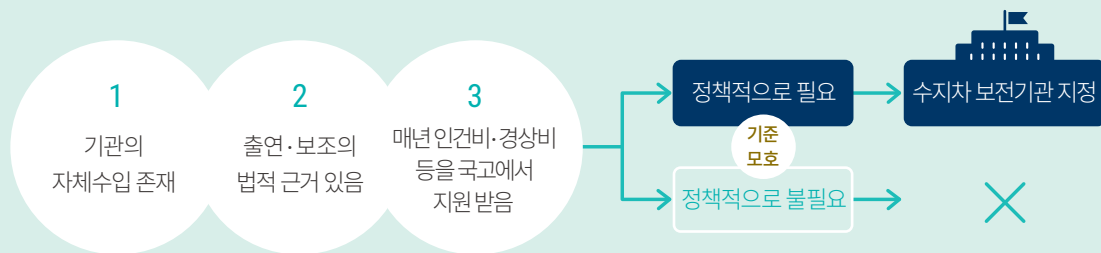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사업으로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의 업무를 상호 조정하여 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개혁과제

중점 평가

1.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편성 평가

수지차 보전기관* 제도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운용되는 예산편성 기법이나, 수지차 보전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이 미흡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기준(기획재정부): 1,2,3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실제로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관마다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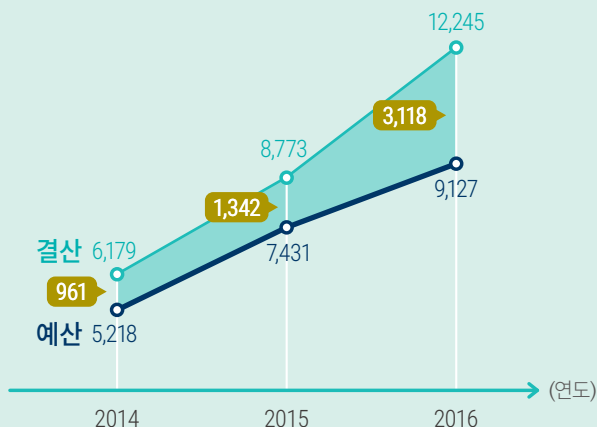
*수지차 보전기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

2. 공공기관 정부배당과 정부수입예산의 적정성 평가

정부가 출자한 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 예산은 최근 3년간 결산에 비해 적게 책정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순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부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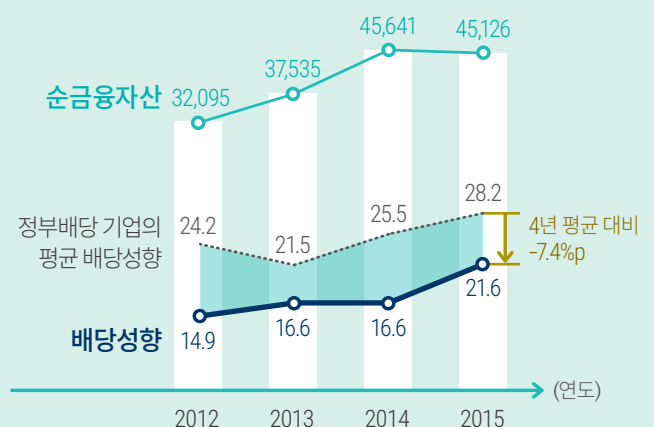
정부출자수입 예산 < 결산

(단위: 억원)



A공사의 순금융자산 대비 배당성향*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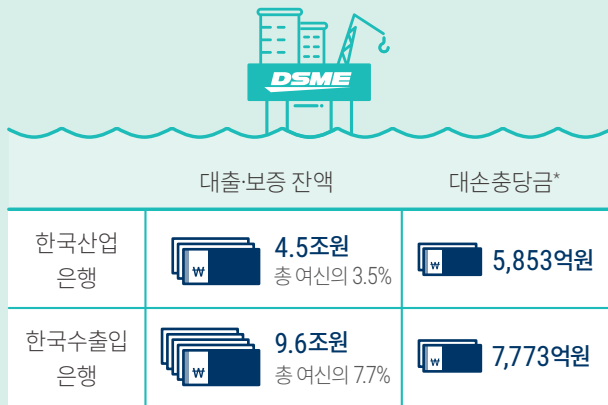
*배당성향: 당기순이익의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개선방안 수지차 보전기관의 지정기준을 체계화하여 수지차 보전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정부배당의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배당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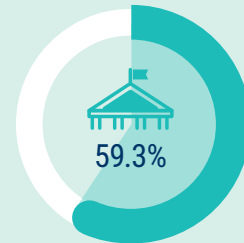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집중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중 현물출자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있음.

B기업에 대한 여신 집중('16.6)



※ 회계감사법인 B기업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비중('06~'16)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총 출자금액 10.8조원 중
현물출자 6.4조원(59.3%)

*대손충당금: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설정하는 계정

4. 공기업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실효성 평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개략적인 자료로는 공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예산정보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함에도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함.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 없음	14건	1건
시나리오에 따라 다름	2건	1건
타당성 있음	42건	36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개선방안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주무부처 및 의사결정주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임.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기업의 사업별 수입과 지출내역 등 예산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평가

주요 분야별로 사업·예산규모가 큰 기관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

분야	공공기관	평가 부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국토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테이 사업	LH 보유토지 공모방식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방식과 형평성을 맞추어 개선 필요
	한국수자원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 고유목적사업(물 관리·공급 등)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매출액 비중도 낮아질 전망. 향후 투자관리 강화 필요
	인천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사업	최근 여객 및 화물수요가 정체되고 있음.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국제 여객터미널 투자에 대한 조정 검토 필요
사회·문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예산 분석	해마다 법정 수준에 미달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법 개정을 통한 개선 필요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예산 편성	출산크레딧은 기금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금가입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국고부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사업 운영 실태	K-MOOC사업은 기관 고유업무로 보기 어려움.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별도 보조사업으로의 편성 고려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육성사업 추진 실태	예산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보완 및 투입 위주의 성과지표 변경 등 성과관리 개선 필요
농림·수산·식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운영 실태	농지관리기금은 사업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성과 미흡.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수출사업	유통조성 부문의 투자와 성과 미흡. 신유통경로 확대 등에 대한 투자 및 참여 노력 필요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 실태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서 투자실적과 말 사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 미흡.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
교통·에너지	한국도로공사	교통 SOC 건설 정부 지원 사업	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건설비 세출구조조정 및 출자 범위·규모의 명확화 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 매출확대 등 근본적인 방안 마련 필요
	한국철도공사	교통 SOC 공익 서비스 (PSO) 보상사업실태	열차별 보상을 위한 비용 산출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보상 개편방안 검토도 필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사업	순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세 가지 사업의 지원대상 통일 필요